"눈·목소리 힘뺐더니 친근해졌죠"

'한끼줍쇼' '아는 형님'에 '강식당'까지 제2전성기 맞은 강호동

강호동(47·사진)이 다시 전성기를 찾았다.

'한끼줍쇼' '아는 형님' '섬총사' '신서유기'의 성공에 이어 지난 5일 첫선을 보인 '강식당'까지 시작부터 대박 조짐이다. 내년 1월에는 또다른 토크쇼 '토크몬'(가제)이 론칭 대기 중이다.

모두 케이블 프로그램이다. 지상파는 하나도 없다. 지난해 10월 그가 지상파 3사 프로그램에서 모두 철수했을 때 '강호동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그는 이후 1년간 케이블에서 종횡무진하며 지상파에서 '철수 당한' 설움을 만회했다. 지상파 예능의 시청률이 5%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호동은 케이블에서 지상파 부럽지 않은 시청률과 인기를 누리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강호동은 지난해 10월4일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이 막을 내리면서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모두 철수했다. 한때는 유재석과 나란히 지상파 예능 MC 투톱 체제를 굳건히 했던 강호동으로서는 굴욕도 이만저만한 굴욕이 아니었다. 세금 문제로 인해 2011년 9월 잠정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가 1년 만에 복귀한 이후 그는 줄곧 내리막을 걸어야 했다.

MBC TV '황금어장-무릎팍도사'는 2013년 8월 문을 닫았고 야심차게 선보인 KBS 2TV '달빛프린스'(2013년 1~3월), MBC TV '별바라기'(2014년 6~9월), KBS 2TV '투명인간'(2015년 1~4월) 등 신생 프로그램들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단명했다. 세금 문제 이후 복귀작이자 장기간 MC를 맡았던 SBS TV '스타킹'도 지난해 8월 9년 역사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케이블 채널에서 다시 재기를 노렸고, 특유의 근성을 발휘하며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이미지와 욕심, 스타일 등을 다 내려놓는 어려운 시간을 거쳤다.

강호동과 형제지간 같은 매니저인 박태현 SM C&C 상무는 "강호동 씨가 다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옛날에는 1등만을 목표로 했다면,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욕심을 내려놓았다"며 "예전에는 호통만 치고 꽥꽥 소리만 지른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눈에서 힘도 빼고 목소리에서도 힘을 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고 친근하게 여긴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는 형님'이나 '신서유기' 등을 보면 강호동은 과거 '1박2일'에서 봤던 강호동과 전혀 다르다. 대장으로서 프로그램의 그림을 단단히, 독점적으로 쥔 채 강하게 밀어붙이던 스타일에서 벗어나 후배들에게 구박과 놀림을 일상적으로 당하고 약한 모습도 수시로 노출한다. 이를 통해 강호동에 대한 대중과 시청자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강호동의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하는 데는 그를 믿고 끌어준 PD들이 있다. JTBC에서는 여운혁 PD와 '아는 형님'을, tvN에서는 나영석 PD와 '신서유기', '강식당'을, 올리브에서는 박상혁 PD와 '섬총사'에 이어 '토크몬'을 하는 강호동은 이들 PD와의 찰떡궁합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강호동은 처음에는 이들 프로그램을 하는 데 주저하거나 시행착오를 겪었다. '아는 형님'의 경우는 초반 시청률 부진으로 폐지 위기까지 몰렸다가 포맷을 대폭 수정한 후 JTBC의 대표 프로그램이 됐다.

또 인터넷 예능으로 출발한 '신서유기'는 강호동에게 굉장히 생경한 분야였다. 지상파 프로그램만 하던 강호동은 '신서유기'에 출연하기까지 고민이 많았고, 실제로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신서유기'를 통해 그는 알을 깨고 나오는 전환점을 맞았고, 트렌드에 맞게 자신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작년 10월 시작한 '한끼줍쇼'는 50대 이상 시청자에게 큰 지지를 받는 프로그램이 되면서 강호동을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푸근한 MC로 만들었다.

이경규-강호동 조합은 두 사람에게 지난 20년 마음 속 최후의 보루처럼 남겨둔 카드였던 것.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그만큼 큰 상처가 될 위험이 있었다.

'신서유기' 외전으로 기획된 '강식당'은 지난 5일 첫 방송에서 5.4%를 기록하며 단숨에 5%를 넘겼다. '윤식당'의 패러디 형태로 기획한 '강식당'은 예상대로 '신서유기' 멤버들의 야단법석으로 채워졌다.

그런데 강호동은 여기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눈길을 끈다. 평생 먹는 것에만 집중하다 처음으로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하게 된 강호동은 정신없는 와중에 계속 "침착하자~"고 자신과 동료를 다독이는가 하면, 수시로 "행복을 주는 식당"이 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주메뉴인 돈가스를 보통 식당의 1인분인 150g의 배 이상인 400g으로 만들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게 하고, 요리 연구가 백종원에게 배워온 레시피를 달달 외워 그대로 시현하기 위해 신경을 기울이며 애를 쓰는 그의 모습이 정겹다.

박태현 상무는 "먹는 것은 세계 1등이지만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강호동 씨가 주방에 들어가 엄청 노력했다"며 "강호동 씨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또 "'강식당'의 촬영 과정이 SNS를 통해 중계되면서 손님들이 엄청 몰려들어 대박이 났다"며 "이 같은 호응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변진섭, 데뷔 30주년 새 음반

1·2집 작곡가와 협업

"추억 전해주고 싶어"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은 가수 변진섭(51·사진)이 기념 싱글 음반 '어게인 1990'을 발표했다.

10일 소속사 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변진섭은 1·2집 대표곡을 만든 작곡가 지근식과 다시 의기투합해 음반을 완성했다. 지근식은 '새들처럼'과 '네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너무 늦었잖아요', '그대에게' 등 변진섭의 히트곡을 만들었다.

변진섭은 당시의 추억과 감성을 기다리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근식을 찾아가 녹음 작업을 마쳤다.

타이틀곡 '떠나자'는 1집의 '새들처럼'처럼 경쾌한 리듬에 일상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노랫말이 담겼다. 그는 이 시대를 사는 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노래에 담았다고 한다.

또 다른 곡 '네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은 1집에서 큰 사랑을 받은 곡을 재즈 스타일로 편곡해 변진섭과 지근식이 화음을 맞췄다.

1987년 MBC '신인가요제' 출신인 변진섭은 1988년 1집 '홀로된다는 것'이 히트하며 단박에 스타덤에 올랐고, 1989년 2집에서 '너에게로 또 다시', '숙녀에게', '로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희망사항' 등 다수의 곡이 히트하며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현재 전국투어 중인 그는 16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17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공연을 앞뒀다.

/연합뉴스

앵커 교체한 'MBC 뉴스' 시청률 상승

새로운 사장을 맞은 MBC가 간판 저녁 뉴스의 앵커를 교체한 가운데 시청률이 소폭 상승했다.

1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MBC TV가 9일 오후 8시에 방송한 'MBC뉴스'의 시청률은 4.1%를 기록했다. 앵커 교체 전인 7일에는 3.1%, 교체 당일인 8일에는 3.5%로 집계돼 교체 후 이틀 연속 조금씩 오른 셈이다. 지난주 토요일인 2일(3.4%)과 비교해도 0.7%포인트 올랐다.

반면, 같은 시간대 방송한 SBS TV 'SBS 8뉴스'와 JTBC '뉴스룸'은 이틀 연속 시청률이 떨어져 'MBC뉴스'에 시청자를 다소 빼앗긴 것으로 분석된다.

'SBS 8뉴스'는 7일 6.1%에서 8일 5.8%, 9일 5.0%로 하락했으며 JTBC '뉴스룸'는 같은 시기 6.133%(이하 JTBC는 유료플랫폼), 5.620%, 3.059%로 떨어졌다.

다만 두 뉴스 모두 지난주 토요일(2일)의 4.6%, 3.307%과 비슷한 수치라 정확한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MBC TV는 지난 7일까지 '뉴스데스크'를 진행해온 이상현-배현진(평일), 천현우(주말) 앵커가 모두 하차했다. 이에 따라 그간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김수지 아나운서가 당분간 평일 저녁 앵커를 혼자서 맡고, 엄주원 아나운서가 주말 뉴스를 단독 진행하게 됐다.

MBC는 'MBC 뉴스데스크'의 간판을 한시적으로 내리고, 정상화 될 때까지 일반 뉴스 타이틀인 'MBC 뉴스'라는 타이틀로 메인 뉴스를 방송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⑤:55 세상기록 48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2TV 생생정보	00 MBC 뉴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5 정당정책 토론회	10 좋은 아침
10	00 2017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50 영화가 좋다(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50 저글러스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문화사색 5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그린토피아 남도 미래를 열어라 (재)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아카데미	50 VJ 특공대	35 샤이닝스타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05 텔레몬스터 10 꾸러기 식사교실 40 투깝스 (재)	00 뉴스브리핑
3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4	00 4시 뉴스집중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재) 35 UHD 한식(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 산(재) 30 살림하는 남자들 스페셜	00 MBC 이브닝 뉴스 30 전생에 웬수들 (재)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밥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서남해안 관광프로젝트 -신해양시대 바다가 미래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35 투깝스(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저글러스	00 투깝스	00 의문의 일승
11	15 월요기획 태권도, 다시 세계를 품다(가제)	10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10 아시아의 향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05 이웃집 찰스 (재) 55 생활의 발견	50 사랑의 가족 (재)	10 천년의 전라도 25 겁 없는 녀석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풍속 기행 자연의 축복을 노래하라 퐁갈〉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허풍선이 과학쇼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명란젓 늙은 호박찌개와 꼬막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과학 다큐 비욘드(재)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4:30 레이디버그
15:00 우주탐험가 젯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엄마 까투리
16:15 두다다쿵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로봇 발명왕 러스티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몽골 수의사 가족〉
20:50 세계테마기행 〈호주, 그 멋진 날에 - 셜레임의 도시 멜버른〉
21:30 한국기행 〈오메, 참말로 좋소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엄마를 찾지마
23:35 깨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세계의 드라마 〈더럴 가족 이야기 5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1일(음 10월 24일 壬申)

子 48년생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60년생 일생일대에 있어서 중차대한 일이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72년생 완벽을 추구하려다가 더 이상해질 수도 있다. 84년생 속도에 집착하다보면 불완전하게 끝맺는다. 행운의 숫자 : 20, 50

丑 49년생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61년생 조금만 더 가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라. 73년생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가깝다는 사실을 알라. 85년생 시기와 경중의 안배에 충실 하는 것이 지혜롭다. 행운의 숫자 : 88, 45

寅 50년생 기민한 감각을 통하여 얻은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62년생 사리에 맞지 않거나 불편한 것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옳다. 74년생 우회하는 편이 더 쉽다. 86년생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시켜 보자. 행운의 숫자 : 44, 71

卯 51년생 일방적으로 행한다면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다. 63년생 해결점을 찾으면서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벗어나는 판세에 놓인다. 75년생 가볍게 주고받는 말 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87년생 마음먹었던 목표에 접근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4, 71

辰 52년생 전체적인 흐름의 양상을 살펴본 후에 판단하자. 64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76년생 다양한 방법을 도출해 내어 전방위적으로 모색하라. 88년생 경사스런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에 싸여 있는 정황이다. 행운의 숫자 : 90, 59

巳 53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65년생 간접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위주로 대응한다면 큰 성과를 거두리라. 77년생 망설이지 말고 대범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 89년생 먼 곳으로부터 오는 희소식을 접하리라. 행운의 숫자 : 10, 74

午 42년생 원점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54년생 고뇌는 삶을 승화시키기에 충분하다. 66년생 걱정해 봤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78년생 우선순위에 기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90년생 매끄러운 마무리가 동세를 좌우하겠다. 행운의 숫자 : 48, 83

未 43년생 많은 재앙이 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5년생 대단히 혼란스럽겠다. 67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라. 79년생 자극을 줄 필요는 있다. 91년생 탄력적이라면 진척을 보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3, 87

申 44년생 예전에 접해 보지 못했던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다. 56년생 늦을수록 불리하니 오늘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라. 68년생 실제의 현장 감각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80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58, 76

酉 45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자. 57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나은 결과를 낳게 한다. 69년생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81년생 평생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천재일우의 찬스가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6, 24

戌 46년생 떠들어도 별 것이 아니니 결코 놀랄 것까지는 없다. 58년생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청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70년생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하다. 82년생 기존에 있어 왔던 것이니 다루기가 용이하겠다. 행운의 숫자 : 66, 01

亥 47년생 지속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다. 59년생 없애거나 변동시키려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71년생 이미 험로는 지났다고 볼 수 있으니 과거보다는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83년생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행운의 숫자 : 76, 3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